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

제 2111호 2019. 12. 8. 대림 제2주일 · 인권 주일 · 사회 교리 주간

제1독서 : 이사야서 11,1-10
제2독서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5,4-9
복　　음 : 마태오 복음서 3,1-12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서예희 발레리아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신부님 말씀

알곡이 됩시다!

18지구 목5동 성당
황성준 세례자 요한 신부님

찬미예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에요. 성당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연말을 준비하고, 교회에서는 대림초에 두 번째 촛불이 켜짐으로써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친구들은 대림절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나요? 아마 각자 계획한 것들을 잘 실천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도 곧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따라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세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끝인 걸까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나의 모습들을 버리고 내 안의 것들을 하느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한답니다. 쉽게 말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가르침들과 계명들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나의 모습을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해요.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타작의 모습과 같답니다.

타작이란 곡식을 수확할 때 키 혹은 탈곡기로 수확물들을 털어 내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말해요. 그렇게 분리된 알곡들은 따로 모아서 곳간에 보관해 둔답니다. 여기서 알곡은 우리 자신, 쭉정이는 우리가 지은 죄와 악의 유혹들, 키 혹은 탈곡기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과 계명들을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악한 것에 대한 유혹들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비로소 하느님 닮은 깨끗한 모습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곳간, 즉 하느님 나라에 모아 두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느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하느님의 가르침과 계명들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아요!

그림_ 최진태 임마누엘

소금통

오늘 복음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세례자 요한 ② 사도 요한
③ 요한 바오로2세 ④ 요한 보스코

도란도란 성경여행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기다 1 (사무엘기 상권 17,12-24)

다윗은 이사이의 아들이다.
이사이의 큰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 지키는 군사에게 맡기고,
전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다윗이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열에서 골리앗이 올라와서 말을 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쳤다.

* 골리앗 그림 중 다른 그림 두 개를 찾아보세요.

그림_ 송민경 도로테아

글/그림 이정현 베네딕토

◆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 1,23) ◆

우리들 솜씨

가을 소풍을 다녀왔어요

석관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 찬미 예수님

석관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가을을 느끼고자 넓은 자연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답니다.

가을 소풍을 통해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자연의 변화도 직접 관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과자 따먹기, 공차기, 보물찾기, 고깔을 쓰고 작은 구멍으로 보이는 단어를 연결해서 성경 구절 맞추기 등 조원들과 협력하며 함께 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으로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원도 둘러보면서 수집한 자연물을 이용해 성경 구절을 넣거나 편지를 써서 나만의 자연물 액자도 만들어보았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서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 사랑안에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느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든 소중한 하루였답니다.

'우리들 솜씨'는 **어린이,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부모님**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소개하고 싶은 글, 그림, 사진 등을 주보 앞면의 주소지 또는 스캔처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주보에 실린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복자 돋보기

복자 최 비르지타 (1783-1839년) / 신분: 과부, 순교자

복자 124위 초상화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최 비르지타의 남편은 신유박해 때 유배를 갔다가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의지할 곳이 없어진 그는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기해박해가 일어났고, 조카인 복자 최해성 요한은 가족을 피신시키고, 천주교 서적을 가지러 갔다가 체포되어요. 최 비르지타는 조카를 만나러 감옥을 갔다가 천주교 신자임이 발각되었고, 관원들은 배교하지 않으면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느님을 배반할 수 없다며 배교를 거부했어요. 감옥에서 4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그는 1839년 순교하였는데, 순교하는 순간 몸에서 한 줄기 빛이 올라갔다는 증언이 있어요.

글_ 김연재 엘리사벳